

보험사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IFRS4 2단계 도입 영향과 준비





신병오 상무

Audit Group F
02-6676-1225
byoshin@deloitte.com

IFRS4 2단계의 주요 내용

IFRS4는 40여 개의 국제회계기준(IFRS) 중 보험 계약과 관련된 기준서이다. 현재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 IFRS4 2단계는 현행의 IFRS4를 대체하게 되는데 내용의 변경이 매우 크며, 따라서 기존의 모든 회계 처리가 바뀌게 된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보험감독규정이 보험회계 관행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보험감독규정에 근거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IFRS4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FRS4 2단계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통일된 보험회계 처리를 적용해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보험사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4 2단계를 제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기존의 회계 처리는 거의 대부분 변경된다. 주요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수익 인식 방법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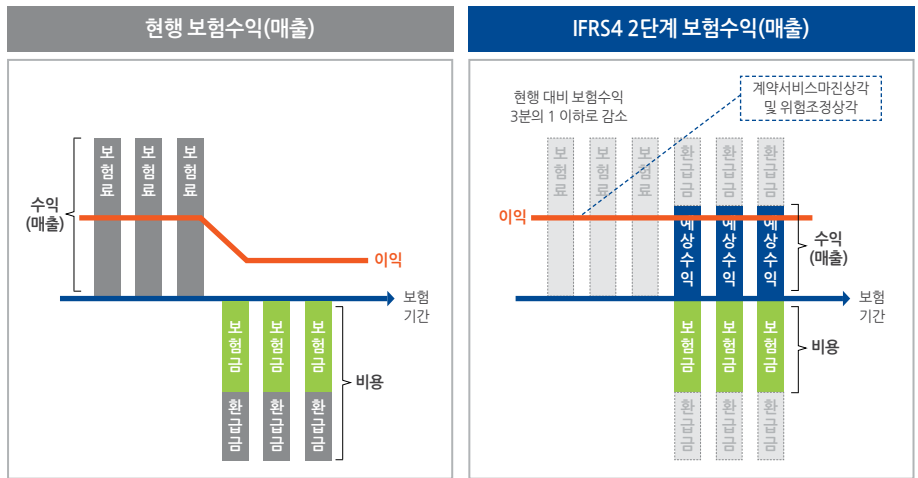
현행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약속된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매출(수익)로 인식한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 요소,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장 요소 및 보험사 운용 비용에 충당되는 사업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이러한 요소의 구분 없이 모두 매출로 인식한다.

그러나 IFRS4 2단계에서는 보험수익 인식에서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는 인식 시기이다.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이 아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보험수익이 인식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은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해당 사업비가 발생하는 때이다. 즉, 보험금 등이 발생해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에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익 인식 시기는 현행 방식보다 늦어지게 된다.

둘째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의 외형은 현행보다 크게(약 3분의 1 수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익 인식 방법의 변화는 이익을 인식하는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방법은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보험 기간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나, IFRS4 2단계에 의하면 보험 이익이 보험 전 기간에 걸쳐 평탄하게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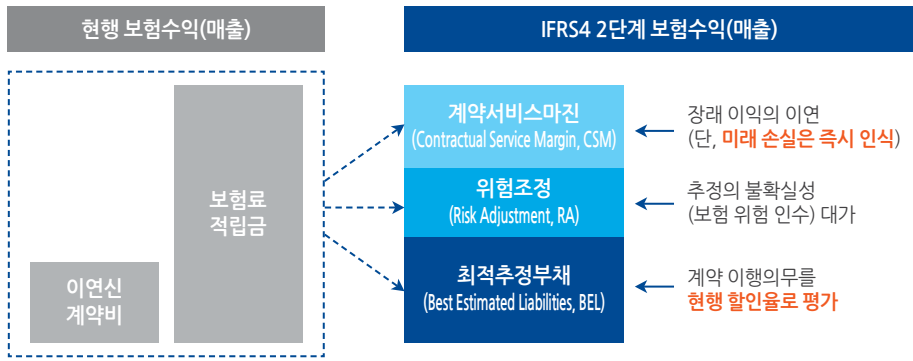
출처: Deloitte Analysis

2.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현행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보험 계약을 판매한 시점에 사용한 최초 추정과 가정을 변경 없이 적용해 보험부채를 계산한다. 즉, 원가법 평가를 하고 있다.

IFRS4 2단계에서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매 결산기에 계리적 가정(사고율, 사업비율, 해약률 등) 및 시장가정(할인율 등)을 현재 시점 기준에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또한 보험부채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각각 측정된다. 계약의 의무이행(미래에 유출되는 순 현금흐름)을 현재의 할인율로 측정하고(최적추정부채), 부채 측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채(위험조정)도 계상한다. 여기에 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보험료가 보험원가(최적추정부채 및 위험조정)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사의 장래 이익(계약서비스마진)으로 부채로 계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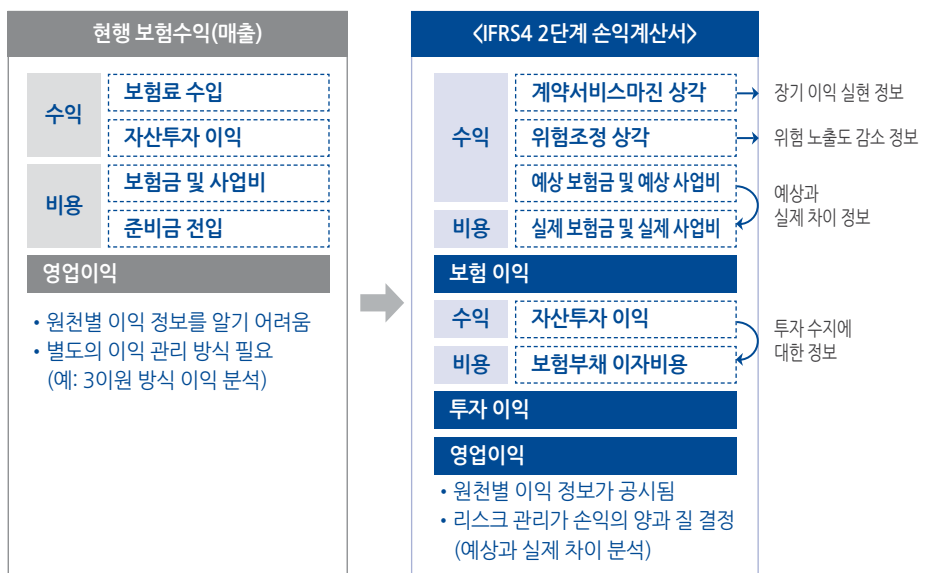


출처: Deloitte Analysis

3. 이익의 표시

현재 회계 처리 방식은 보험사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반 정보 이용자들이 알기 어렵다. 현금 유입을 매출로, 현금 유출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원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보조적으로 3이원 분석¹을 통해 이익 정보를 감독 당국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다.

IFRS4 2단계에서는 이익을 원천별로 표시하게 된다. 판매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계약서비스마진의 이익 전환, 보험 위험 인수 대가인 위험조정 상각,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과 실제 차이, 투자 이익이 모두 구분되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따라서 일반 정보 이용자들은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사의 이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출처: Deloitte Analysis

1 3이원 분석: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세 가지 원천에 대한 분석.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상과 같은 보험회계의 변화는 보험사 경영에 대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한 경영 변화 사항은 변동성 관리, 가치 정보 관리, 정보 정합성 관리이다.

1. 변동성 관리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이 확대된다. 매 결산기마다 보험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할인율인데, 시장금리의 변동은 할인율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보험부채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매년 보험사의 자본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출렁이게 된다. 이를 보완하는 데에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ALM)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자산 운용 및 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이 ALM 차원에서 보험부채의 평가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2. 가치 정보 관리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 계약에 대한 가치 정보가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보험 계약을 판매한 시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보험 이익을 계약서비스마진이라는 부채로 계상한다. 이후에 보험 기간의 경과에 비례해서 계약서비스마진을 당기 이익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보험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통해 일반 정보 이용자들은 보험사의 미래 이익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계약서비스마진은 보험사의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재무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비스마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관리이다. 최초 판매 시점의 가정과 이후 결산 시점의 계리 가정이 달라지면 이로 인한 예측과 실제의 차이는 당기순이익과 장래 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클수록 당기순이익과 계약서비스마진에 대한 정보의 질은 저하된다.

보험사의 가치 정보에 대한 관리는 보험부채 계산에 수반되는 가정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가정의 고도화를 통해 부채 결산,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및 성과 관리에도 통일된 가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현행은 보험 계약을 많이 판매하기만 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험사의 이익과 외형(매출)이 개선되지만, IFRS4 2단계에서는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보험 기간 동안 유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안정적인 이익이 기록된다. 따라서 향후 경영은 외형 중심(판매 중심)에서 장기 가치 중심(이익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3. 정보 정합성 관리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처리 요구량이 현행 대비 크게 (금감원 예측 - 2만 배 이상) 증가한다. 재무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적시에 재무공시가 어렵게 된다. 또한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및 보험 이익 계산에 많은 가정과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정합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나아가 중대한 오류가 내포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 변동성 확대	손익 관리의 변화	재무 정보의 정합성
부채 평가 할인율 변동	보험손익 인식 방법 변화	2단계 회계 정보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인율 변화로 인한 부채 변동이 자산 변동보다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클수록 손익 변동성이 증가함 - 이 차이는 CMS에 영향을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4 2단계 재무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적시에 산출되는 것이 중요
변동금리 상품 최저 보증 평가	손실 계약 테스트	정보 처리 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은 일반 계정 최저 보증을 평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 보험 원가인 상품은 총 손실을 판매 즉시 당기 손실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보다 2만 배 이상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필요
지분증권 평가손익	가치 정보 외부 공시	시스템 이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수익증권, 해외투자 변동성 확대 - 손익 관리 조절 수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원가, 가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공시됨 - 중장기 손익 예측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4 2단계 도입 시에도 현행 시스템 필요 - 세무, 해약·환급, 계약자 배당

출처: Deloitte Analysis

준비 사항

1. 해외 보험사들의 상황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앞서 해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FRS4 2단계는 전 세계가 동시에 적용하게 되지만 유럽 보험사들은 유럽 보험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를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유럽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과 Solvency II 도입에 대비해 경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 왔다.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요구되는 자본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먼저, 상품의 구조를 변경했다. 금리 보장의 수준을 축소하고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을 확대하는 등 변동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상품 개발 수준에서 시작한 것이다.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보험 계약 판매와 유지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자산 운용은 부채 현금흐름에 기반을 둔 투자 정책을 중시했다. 투자의 최우선 목적은 ALM 차원에서 부채 변동성에 대응되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의 목적은 잉여금(Surplus)을 통한 이익 창출 극대화이다. 투자 다변화를 시도했으며 자산 투자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과 자산 운용 조직을 확대했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경영 변화 노력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의 지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격의 자율화, 금리 보장 축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 투자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리스크 규제 완화 등

보험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왔다. 유럽 보험사들은 이미 부채공정가치평가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이에 대비한 경영 준비도 완료했다.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있어서는 적합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적시성 있는 재무 정보 산출, 외부 감사를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한 관심 사항이다. 반면, 한국은 IFRS4 2단계 도입 시 유럽 보험사들과 같은 경영 준비 없이 부채공정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한국이 유럽 보험사들과 달리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유럽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공정가치평가를 위한 경영 준비를 이행한 후 IFRS4 2단계를 도입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간 과정이 없다. 그야말로 퀀텀점프(Quantum Jump)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체계적인 이행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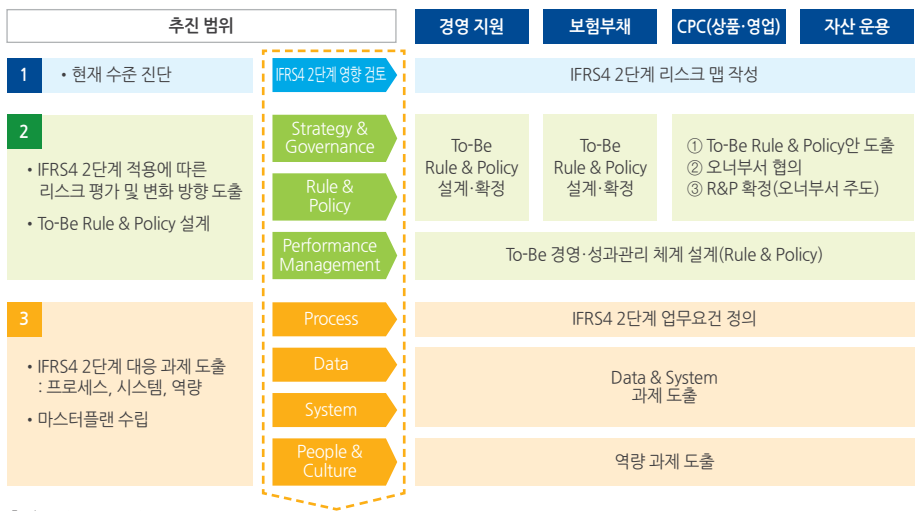
가장 시급한 준비 사항은 보험사 내부의 인력 양성이다. IFRS4 2단계는 한국의 보험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IFRS4 2단계는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우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사적인(회계, 계리, 리스크, 상품, 자산, 관리 등) IFRS4 2단계 전문가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세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재무 영향 분석

IFRS4 2단계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IFRS4 2단계 요건 충족에 미달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 사항은 IFRS4 2단계 이행 과제로 정리된다.

2) 경영 영향 분석



출처: Deloitte Analysis

상품 개발, 판매 채널, 자산 운용, 리스크 관리, 재무제표 결산, 성과 관리 및 경영 보고 등 전 영역에 걸친 변경 사항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각 부서의 전략, 운용 방안, 프로세스, 인력,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다. 각각 해당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IFRS4 2단계 이행 과제로 정리된다.

3) 마스터플랜의 수립

IFRS4 2단계 이행 과제가 파악되면 과제 수행 방법, 예산, 기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IFRS4 2단계 준비 예산과 일정이 마련된다.

4) 전담 조직 구성

IFRS4 2단계 세부 이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사 인력을 모아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 인력은 IFRS4 2단계 도입 이후에 회사의 각 부분에서 IFRS4 2단계를 전파하는 핵심 인력이 될 것이다.

5) 세부 이행 과제 수행

수행하게 될 이행 과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IFRS4 2단계 목적에 부합한 계약 데이터 관리
- 가정관리 고도화 및 관리 일원화 체계
- IFRS4 2단계 관점의 상품 가격 체계 수립
- 수당 수수료 재편
- 사업비 관리 체계(표준원가제도 포함)
- IFRS4 2단계 상세 회계 정책 및 요건
- 관련 시스템 설계(부채 결산, 재무제표 작성, 감사 추적, 듀얼 시스템 등)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 보유 계약에 대한 계약서비스마진 계산 및 객관성 확보 작업
- 공시용 재무제표 전환 및 외부 인증
- 손익 보고 및 관리 체계 개편(경영자 보고 시스템 포함)
- 전사 ALM 전략 및 변동성 관리 방안 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다. 많은 경영진이 IFRS4 2단계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내용도 복잡하고, 영향도 크며,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 투자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 확충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영향은 IFRS4 2단계가 도입되고 나서 발생할 것이다.

당장의 현안이 아니면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회사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영진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